

[온누리 가정축제(OFC)]

주제강의2 : 클릭(Click)! 자녀에게

이찬수 목사 / 페이지 수: 3

옹알이를 들어주는 가정

언젠가 대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하셨던 말씀 중 한 마디가 제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옹알이’를 하는데, 이 교수님에 의하면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옹알이에 귀를 기울여주고 박수를 쳐주면 아이가 커가면서 어휘력이 발달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TV보는데 정신이 팔려있다면 자폐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내가 하는 청소년 사역은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어주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어주는 공간입니까? 옹알이는 갓난아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옹알이를 들어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뭔가 질문할 때, 머리속에서 잘 다듬어진 문장을 만드느라 고민을 합니다. 잘못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친구에게 어설픈 말을 했다가는 왕따 당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비행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강박하지 않아서 조금만 권면을 하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이들은 한두 달 견디다가 다시 비행청소년이 됩니다. 학교에 가서 마음먹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어주는 공간입니까?

세 가지 권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위한 세 가지 권면을 준비했지만,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라도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자녀의 옹알이를 들어주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을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형성을 위한 첫 단계가 ‘잡담’입니다. 제 아내도 두 시간 가량 이웃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다 잡담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말 같지만, 잡담을 1, 2년 정도하면 다음 단계인 ‘카타르시스’ 단계로 들어갑니다. 잡담의 단계를 충분히 거친 사람은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만큼 잡담이 무르익은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여러분에게 풀어 놓을 수만 있다면 서울대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쉬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파출부까지 나가서 고액과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아이들의 옹알이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부모입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아이들의 용
알이를 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면 자신 있게 말씀 드리건대 문제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
니다. 격려만큼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
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고치십시오. 부부 싸움을
하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합니다. ‘난 네 아버지 만
나 고생하니까 넌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독약을 타서 아이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
홍보는 일은 절대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인정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끝까지 참아주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이 좀 더디게 자라더라도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공간이 되
어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정의하셨습니
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
래 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녀들이 좀 더디게 크는 것을 못 견뎌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서, 기분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탄생하려면 10달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
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황금률처럼 여겼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바울을 위해 성도들이 헌금을 한 일을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
을 제 사역에 적용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
신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들, 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의무는 있지만, 함부로 아이들을 징죄하거나 판
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싹이 노랄다느니, 형편없다느니 하며
단정합니까? 아이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날마다
표현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릴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17일째 되던 날 돌아가셨습
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애, 나는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목회로 이 땅에서 많
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잖니. 네가 그 뒤를 이으면 어떨겠니?” 제게 목사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
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바람을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밤늦게 다닐 때마다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생활이 불규칙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낸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지적과 같습니
다. 저 같은 사람이 옥한흠 목사님을 모시고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

다. 얼마 전 개척한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지 저는 기도의 열매를 따 먹고 있을 뿐입니다.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열매를 먹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응답되지 않으면 ‘아, 하나님께서 아이들 몫으로 비축하시어 두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기도의 열매를 제가 고스란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뿌린 기도의 열매를 아이들이 따 먹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